



꽃개회나무 / *Syringa wolfii* C.K.Schneid.

| 구분 | 설명 |
|------|--------|
| 생물분류 | 식물 |
| 속국명 | 수수꽃다리속 |
| 과국명 | 물푸레나무과 |

| | |
|------|--|
| 과명 | Oleaceae |
| 일반특징 | <p>요약설명 : 물푸레나무과 낙엽 활엽 관목으로 함경도, 평안도, 황해도, 강원도 및 경상북도 등 백두대간에서 자란다.</p> <p>분포지역 : 함경남북도, 평안남북도, 황해도, 강원도 및 경상북도 등 백두대간 분포.</p> <p>형태 : 낙엽 활엽 관목.</p> <p>크기 : 높이 4 ~ 6m.</p> <p>꽃색 : 주황색</p> <p>개화기 : 6월, 7월</p> <p>잎은 마주나기하며 타원형 또는 긴 타원형이다. 예두 또는 짧은 점첨두이다. 톱니가 많고 가장자리에 털이 있다.</p> <p>꽃잎은 연한 보랏빛이 도는 붉은 색이며, 향기가 난다. 판통 안에는 꽃가루와 꽃가루주머니가 있다. 수수꽃다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, 잎이 긴 타원형이고 잎이 나온 뒤에 꽃이 핀다.</p> <p>열매는 삭과이고 그 모양은 뭉뚝하거나 끝이 날카롭다. 열매는 광택이 나며 9월에 익는다.</p> <p>어린가지에는 공기를 순환시켜 주는 조직이 있다.</p> <p>주목, 분비나무, 배암나무, 땃두릅나무와 함께 높은 산에서 자라는 나무이다. 추위에 견디는 성질이 매우 강하며 햇볕이 드는 곳에서 잘 자라지만, 그늘에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. 물이 잘 빠지면서도 적당량의 수분이 유지되는 땅에서 잘 자라며 대기오염을 견디는 성질이 강하다.</p> <p>가을에 충분히 자란 씨앗을 얻어 땅에 묻어 두었다가 봄에 씨를 뿌린다. 늦은 봄이나 장마철에 껌꽃이를 하여 번식시킨다.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식물이다. 꽃의 향기가 매우 좋다.</p> |